

##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변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최근 대남인식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남인식은 남한의 존재인식, 대남인지도,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의식이 약화되고 적대적 의식이 강화되었으며, 안보불안이 상승하였다. 대남인지도와 대북지원 인지도 및 대북지원 효용성 등 전반적인 대남인지도는 낮아졌다. 그러나 절대수치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부분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 절반 이상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같은 민족과 동포라는 의식이 아직은 더 강하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표본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대남인식, 통일의식, 남북관계인식, 대북인식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 번호: NRF-2010-361-A000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I. 서론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은 통일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일이란 궁극적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의 체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체제를 동경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열망했듯이 한반도 통일도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통일을 열망함으로써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그런 점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남한을 통일의 미래대안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남한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무력충돌에 대한 위협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남한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문화적 차이와 이질성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교류 및 지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가늠해 보면 통일이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대남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북한에서 산출하는 공식 통계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러한 자료들이 증언 자료로 간혹 입수되기는 하지만 포괄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로동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논문, 소설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 데일리 NK나 임진강 등의 기관에서 북한 내 정보 원천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통화하며 확보하는 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한 정세분석 자료가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과 같은 권위 있는 북한 연구기관에서는 탈북자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북한실태에 대

한 심도 있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많은 자료들은 여러 유익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종합화가 어렵고 비교분석의 근거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고려하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북한주민통일의식조사」는 북한연구의 과학화와 자료의 종합화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하나원 교육생들을 표본으로 하였지만, 2011년부터 북한의 실상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탈북자, 즉 북한을 탈출한 지 1년~1년 4개월 미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탈북자 의식조사 자료에 대해, 북한체제를 이탈했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법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지역으로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가 5년 이상 축적되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신중을 기한다면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흐름을 추적하는 데에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북한거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언론사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극히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탈북자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조사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4년 6월에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최근 대남인식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남인식은 남한의 존재인식, 대남인지도,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남한의 존재인식은 북한주민의 남북관계인식,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핵위협의식을 살펴보고, 대남인지도는 남한에 대한 지식, 남북 간 차이 및 이질성 인식으로 파악하였다.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항목으로는 대북지원 인지도, 대북지원 효용성,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 인식 등을 살

펴보았다.

2014년 조사대상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탈북한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표본규모는 총 149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0명, 여자는 99명이며, 연령별 분포는 20대 32.2%, 30대 18.8%, 40대 26.2%, 50대 12.8%, 60대 이상 10.1%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출신지역으로는 양강도가 48.3%로 가장 많고 함경북도 35.6% 등으로 동북 국경지역 거주자가 83.9%로 다수를 차지하며, 교육수준은 고등중학교 졸업자 66.7%, 전문대졸 18.0%, 대졸 13.6% 순이었다. 응답자의 직업은 노동자가 30.6%로 가장 많고 사무원 12.2%, 주부 19.1% 등이며, 당원 13.5%, 비당원 85.8%로 조사대상 탈북자는 대부분 비당원이었다. 최근 조사결과를 지난 시기와 비교하는 자료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발간한 『북한주민 통일의식 2008~2013: 북한이탈주민에게 묻다』를 사용하였다.

## II. 남한의 존재 인식

### 1. 북한주민의 남북관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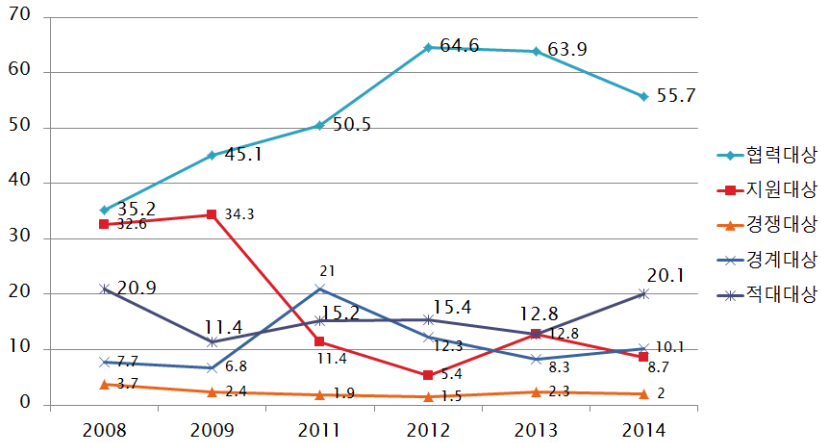
북한주민에게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남한이 북한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지원대상)”,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선의의 경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북한 사회와 주민의식 변화 학술회의(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4년 8월 27일), pp.9~16 참조.

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작년에 비해 ‘협력대상’이라는 생각이 줄고 ‘적대대상’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을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3.9% → 55.7%로 8.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12.8% → 20.1%로 7.3% 포인트 증가하였다.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줄고 적대대상 인식이 늘어난 것은 지난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3월 5일 북한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3월 11일부터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8일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와 함께 군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반입 차단을 실행에 옮기고 영변의 핵원자로 재가동과 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은 B-52와 F-22, 해상 레이더 기지 파견 등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동원된 위협적 무기들에 대한 대응으로 이처럼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당국은 2013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포함하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켰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의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긴장된 남북관계의 현실과 대남비난을 전개한 북한당국의 선전활동이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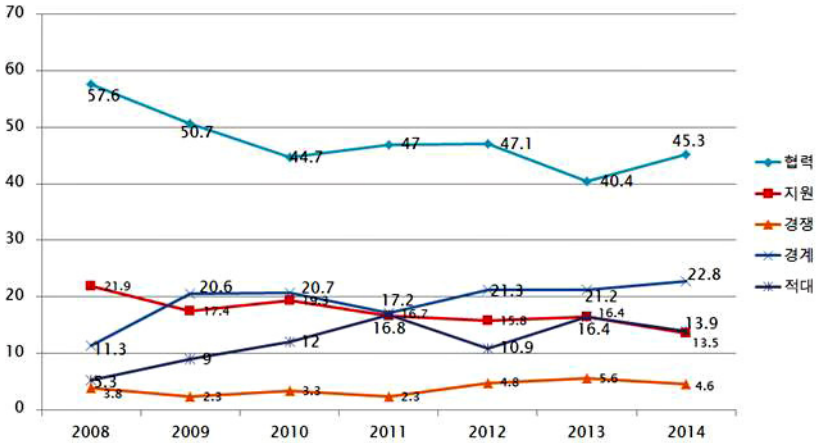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남한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변화된 데는 재입북 탈북자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당국은 재입북한 탈북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도록 주선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탈북과 남한사회에 대한 환상을 품지 못하도록 적극 시도하였다. 2012년 7월 박정숙 재입북 기자회견에 이어 2013년 1월 김광호씨 부부를 비롯한 다섯 차례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전개되었다. 북한매체에 공개된 재입북 탈북자는 13명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탈북자가 북한으로 재입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입북 탈북자를 통한 북한당국의 이러한 활동이 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에 대해 두려움과 적개심을 갖도록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절반 이상은 남한을 여전히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북한주민의 대남 적대인식이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불안정한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55.7%는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는 점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협력적 남북관계 인식은 현재의 위태로운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과 협력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은 지난 1년 동안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변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한주민의 대북인식은 지난 1년 동안 ‘협력대상’ 인식이 40.4% → 45.3%로 증가한 반면, ‘적대대상’ 의식은 16.4% → 13.5%로 감소하였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남한주민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한 것은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2008~201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협력적 대남인식(55.7%)이 남한주민의 협력적 대북인식(45.3%)보다 높게 나타난다. 북한이 남한보다 상대를 더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

보는 이러한 양상은 지난 수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북한주민이 느끼는 남한발 안보불안도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 즉,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남한을 덜 위협적이며 덜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북한주민이 남한을 더 협력적이며 덜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를 탈북자 표본에서 비롯된 편향성 탓이라고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2014년 7월 『조선일보』가 친인척 방문 혹은 사업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2%였고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41%,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대상이라는 응답은 56%였다.<sup>2)</sup> 선택문항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는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북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탈북자들보다 남한을 오히려 더 협력적이며 친근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있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한 반면, ‘없다’는 응답이 78%로 남한발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판단하면 탈북자 표본이라고 하여 남한을 더 우호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일보』의 북한주민 표본을 근거로 보면 북한 내의 주민은 남한이 북한을 우려와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는 달리 남한을 협력과 안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남한의 대북인식이 ‘북한’에 고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대남인식은

2) “중국 내 北주민 100명 심층 인터뷰(上): 對南 인식,” 『프리미엄조선』,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남조선’과 ‘미제’로 다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는 감정은 오롯이 북한으로 귀결되는 데 반해 북한의 대남의식은 ‘미제’와 ‘남조선’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 ‘남조선’이 아닌 ‘미제’이므로, 정치적으로는 때로 남조선 당국을 비난하지만, 그래도 남조선은 동포와 민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국에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주민은 미국(71.8%)을 꼽는 반면 남한을 위협적 국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남한주민은 북한(49.7%)을 제일의 ‘위협국가’로 꼽을 만큼 북한을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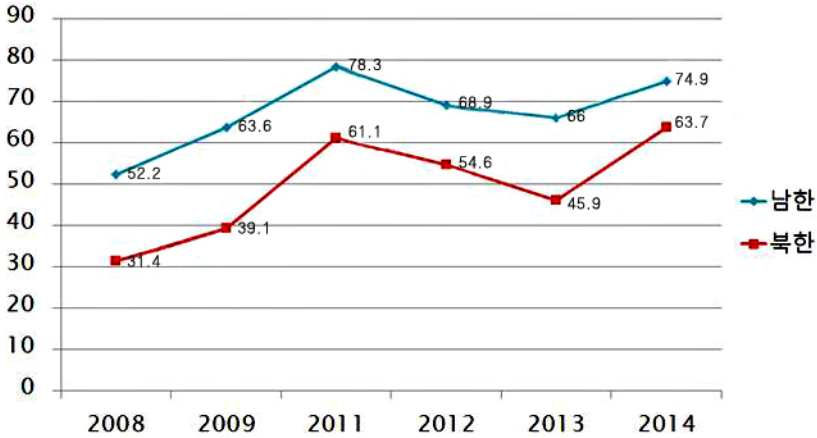
다른 하나의 요인은 한류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한류에 대한 접촉이 85.9%에 달하는 상황에서 남한에 호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북한 내 한류의 유입 속도가 76.7%(2011년), 90.0%(2012년)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고 북한주민 중 85~90%가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남한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지고 있다. 남한주민이 접하는 북한문화는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반면, 북한주민은 남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접촉기회도 많아 남한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을 품게 되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남한의 대북인식에 비해 더 협력적이며 호의적인 현상은 탈북자 표본에서 오는 편향성이 아니라 북한주민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특질이라 할 수 있다.

##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주민은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많이 있다'(32.2%), '약간 있다'(31.5%)를 합하여 63.7%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도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 31.4%에서 2009년 39.1%로 증가했고 2011년에 61.1%로 급증한 이후 2012년에 54.6%, 2013년에 45.9%로 낮아졌으나, 올해 63.7%로 17.9%포인트가 상승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4년 상반기에 북한당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바짝 고조시킴으로써 이러한 안보위기가 북한주민에게 안보불안으로 감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은 남한주민의 의식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가 무력으로 도발해 올 것이라는 안보불안 의식유형이 남북한 간에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발 안보불안 의식이 2008년 이후 고조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졌고 2014년에 다시 고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주민의 북한발 안보불안 의식도 2008년 이후 52.2%(08년) → 63.6%(09년) → 78.3%(11년)로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누그러져 2013년에는 66.0%까지 완화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고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시 상대에 의한 무력도발 불안감이 남북한 사이에 비슷한 양상으로 고조되고, 반대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한에서 동일하게 안보불안 의식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 남북한의 상호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8~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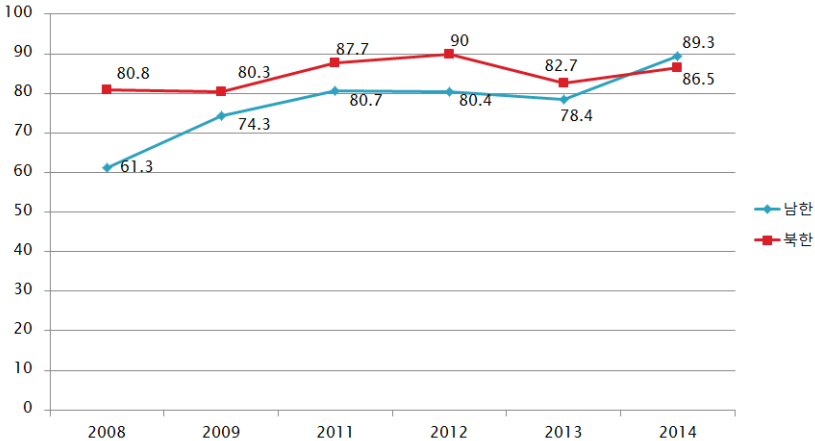
### 3. 북핵 위협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71.1%가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고 응답했고 15.4%는 “다소 위협적인 것”이라고 답하여 86.5%가 ‘위협적일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작년의 82.7%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북한 핵무기의 위력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남 및 대미 방어수단으로서 핵무기를 인식하도록 하는 대주민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 위협에 대한 남북주민 간 인식의 차이도 흥미롭다. 2014년을 예외로 하면 지난 수년 동안 북한주민은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의 위력과 파괴력을 높게 보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북한주민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주민은 북한주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

다는 정도가 좀 약하지만 70% 내지 80%의 주민들이 북한에게서 핵위협을 느낀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2014년에는 남한주민의 북핵 위협 의식이 89.3%로 본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90%에 가까운 남한주민이 북한의 핵무기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남한주민의 안보불안 의식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말해준다.

〈그림 4〉 북핵 위협 의식 (남북한 비교)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경계심리나 적개심은 높아진 반면, 지원대상 의식이나 협력대상 인식에서는 하락하였다. 남한발 안보불안감도 높아졌으며 북핵위협도 조금 높아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2014년 초 북한이 중대제안 형식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바짝 고조시킨 결과에 기인한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남, 대미 군사대응을 공세적으로 펴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으로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남한주민도 심각한 안보불안에 휩싸였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나 북핵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불안이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도 남한주민이 겪고 있는 안보불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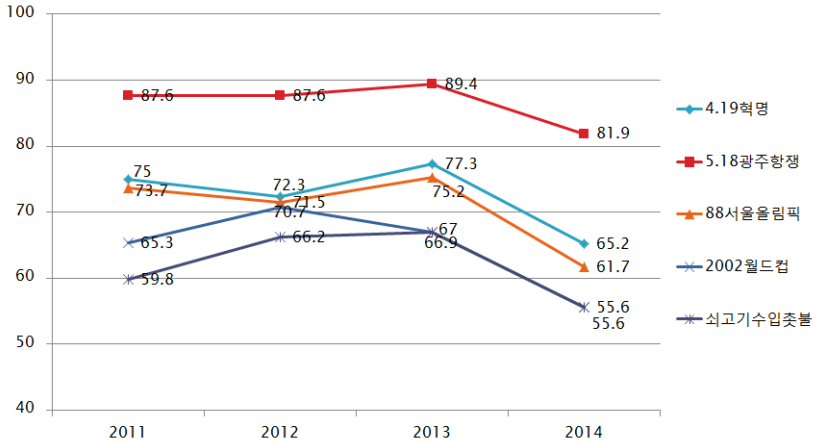
### Ⅲ. 대남 인지도

#### 1. 남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그림 5〉는 2011~2014년 시기 북한주민의 남한 인지도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주민에게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시기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북한주민은 1980년 ‘5·18광주항쟁’(81.9%)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9혁명’(65.2%)과 88서울올림픽(61.7%), 2002 월드컵(55.6%), 쇄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55.6%) 등의 순으로 알고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광주항쟁’, ‘5·18정신’ 등의 담론으로 이 사건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4·19혁명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88서울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축구에 관한 소식은 공식 통로로 접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며 사적 관계를 통해 습득하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3)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제4집 1호 (2012), pp.125~126.

〈그림 5〉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011~2014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평균은 64.0%였다. 이는 작년의 75.2%보다 11.2% 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2011년의 72.3%, 2012년의 70.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5·18광주항쟁’의 인지도는 89.4%→81.9%로 7.5% 포인트 하락했고 ‘4·19혁명’은 77.3%→65.2%로 12.1% 포인트가 하락했다. 88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지도도 75.2%→61.7%로 13.5% 포인트가 떨어졌고 2002월드컵이나 쇄고기수입 촉발시위에 대해서도 10~11%포인트 하락하였다. 대남인지도가 2014년에 갑자기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남북교류의 단절이 장기화되고 한류유입도 최근 정체됨으로써 남한소식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를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절대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마땅치 않지만, 남한주민의 대북인지도와 비교하면 어떨까? 남한주민에게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아리랑축전 등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2014년 62.6%로 북한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대남 인지도가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대남선전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88서울올림픽과 2002

월드컵에 대한 사실을 각각 61.7%, 55.6%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주민이 공식매체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통로를 통해 남한의 소식을 접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정부가 정보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정보유입의 속도만 늦출 수 있을 뿐, 결국 정보전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남북 간 차이, 이질성 인식

북한주민은 남한과 북한 간에 여러 면에서 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선거방식(97.3%), 생활수준(98.7%), 역사인식(95.3%), 언어사용(97.3%), 생활풍습(91.9%), 가치관(93.3%) 등 모든 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북 간의 이질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렇듯 심각한 인식은 2008년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 간의 이질성은 남한주민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는 선거방식(91.0%), 생활수준(93.6%), 역사인식(83.4), 언어사용(83.6%), 생활풍습(83.3%), 가치관(91.8%)로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서로에 대한 이질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 간 차이를 굳이 따져보면 남한주민은 역사인식과 언어, 생활풍습에서 북한주민보다 동질감을 조금 더 느끼고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1〉 남북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2014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1.0	97.3
생활수준	93.6	98.7
역사인식	83.4	95.3
언어사용	83.6	97.3
생활풍습	83.3	91.9
가치관	91.8	93.3

## IV. 남한의 대북지원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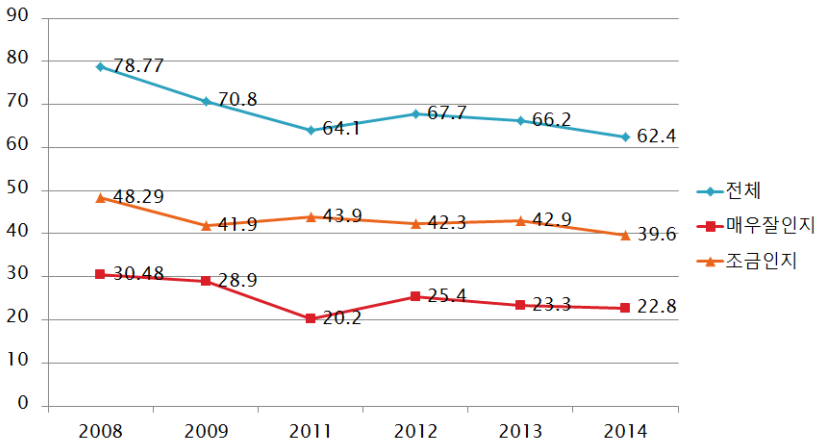
### 1. 대북지원 인지도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이 쌀,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22.8%), ‘조금 알고 있다’(39.6%)를 합하여 총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22.1%),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15.4%)를 포함하여 총 37.5%가 나타났다. 북한주민



중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15.4%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작년의 8.3%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와 ‘모르고 있다’의 비율은 62:37로 약 2:1, 즉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2배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대북지원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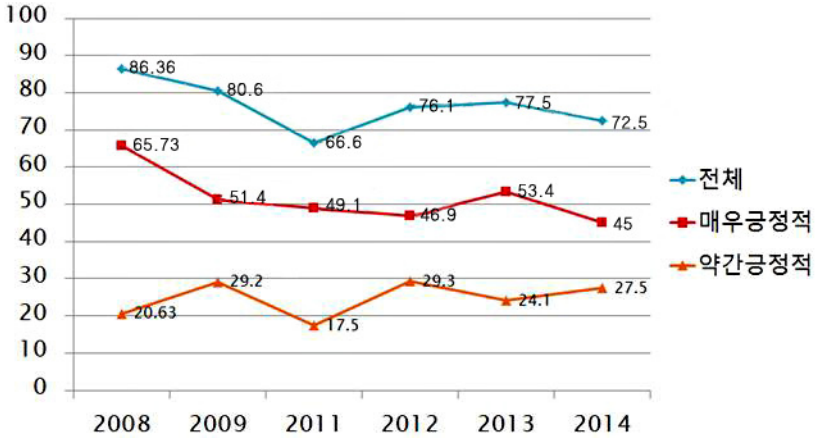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작년과 비교할 때 66.2% → 62.4%로 약간 낮아졌다. 시기별로 보면, 2008년의 78.8%에서 2009년 70.8%로 낮아졌고, 2011년 이후 64.1%(11) → 67.7%(12) → 66.2%(13) → 62.4%(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부터 대북지원 인지도가 60% 중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근래 지속하여 감소한 것은 남북관계의 단절로 대북지원 관련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북지원 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되고 교류와 거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이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 2. 대북지원 효용성

북한주민에 대해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72.5%로 높았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10.1%로 적었다.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8%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이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5.0%로 많았으며, ‘약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7.5%로 북한주민의 눈으로 보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은 북한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주민의 이러한 긍정적 평가는 일부의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대북지원 무용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결과다. 일부 탈북자들은 대북지원이 북한당국에게만 이익이 되고 북한주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논리로 대북지원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대북지원은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를 감안하여 대북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기별로 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보다 긍정 응답률이 약간 낮아졌으며 ‘매우 긍정’에서 ‘약한 긍정’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남북교류가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이 느끼는 대북지원의 효용성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림 7〉 대북지원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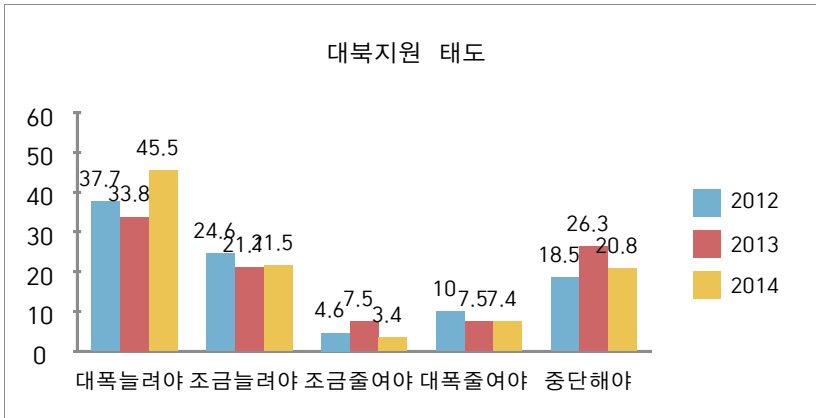
### 3. 대북지원 정책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하는 응답의 비율은 67.0%로 나타났고,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은 10.8%,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응답은 20.8%로 나타나 북한주민 가운데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 1년 동안 대북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3.8% → 45.5%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조금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1.1% → 21.5%로 유지되어 전반적으로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2.1%포인트 상승하였다. 작년 1년 동안의 이러한 변화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12.2%(11) → 19.7%(12)

→ 26.3%(13)로 상승하던 흐름을 반전시킨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2011~2013년 시기에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의견이 많아진 것은 북한내부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 시기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 정치적 논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국내정치화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분배투명성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8〉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태도



2014년 남한의 대북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북한주민의 여론이 높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선 탈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하층민들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 내 하층민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남한의 대북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2014년 들

어 남한정부가 ‘통일대박’ 담론으로 통일준비를 강조한 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앞세우며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반발로 박근혜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공간을 활용하여 남한 대북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남한주민의 여론과 비교하면 북한주민이 대북지원을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남한주민은 2014년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응답은 48.3%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51.7%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주민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과는 달리 북한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이며 더 많은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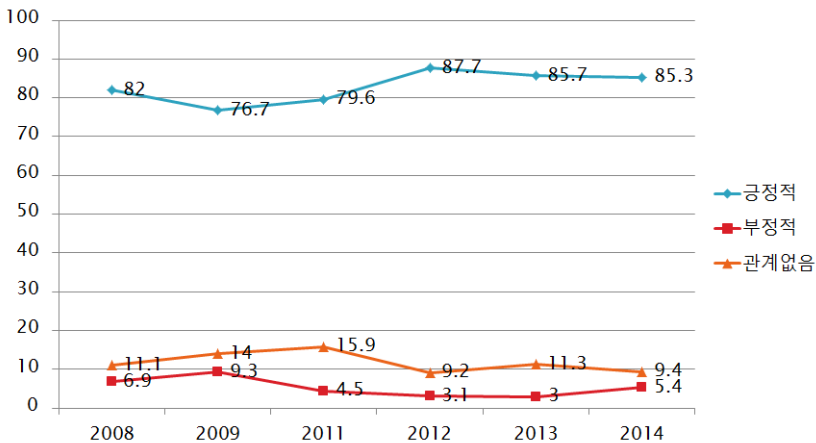
2014년 대북지원인지도는 62.4%로 여전히 높지만 최근 몇 년간 남북 교류와 대북지원이 단절됨으로써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도 낮아지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한 여론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26.3% → 20.8%로 줄었고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12.1%포인트 늘어났다.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의견 가운데는 ‘줄여야 한다’(10.8%)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줄여야 하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하면 남한의 대북지원에 찬성하는 사람은 73.2%나 된다. 대북지원의 효용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주민의 여론(72.5%)과 거의 일치한다. 북한주민의 70%는 남한의 대북지원을 기대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4. 경제투자 인식

대북지원과 비슷한 맥락에서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투자를 북한주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68.5%)과 ‘약간 긍정적’(16.8%)을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85.3%로 압도적이었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의견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각각 2.7%로 매우 적었고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도 9.4%로 많지 않았다. 북한주민은 남한의 경제투자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 경제투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75~85%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대북경제투자에 대한 인식



## V. 결론

탈북자들을 통해 본 2014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협력대상’에서 ‘적대대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사이에 대남 협력대상 인식이 8.2% 포인트 감소한 반면, 적대대상 인식은 7.3% 포인트나 높아졌다. ‘남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불안감은 17.9% 포인트가 상승하여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누그러지던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이 다시 상승하였고,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매우 위협적일 것이라는 의식도 약간 높아졌다. 이처럼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1년 사이에 악화된 것은 최근 1년 동안 초긴장 국면에서 대결적 관계를 지속했던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 당국의 대남비난 선전활동이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적대의식의 상승과 안보불안 고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대남 협력의식도 지난 1년 사이에 8.2% 포인트 줄어들었다. 북한의 대남인지도도 11.2% 포인트 하락했고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한 인지도와 대북지원 효용성도 각각 3.8% 포인트, 5.0% 포인트씩 감소하였다. 남북관계의 단절과 대북지원 활동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북한주민에게 대북지원 관련 소식이나 소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차이와 이질성에 대해 북한주민은 뚜렷하게 의식하고 있으며 정치, 역사, 언어,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절대수치로 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긍정적 부분이 더 넓게 형성되어 있다. 남한과 협력해야 한다는 북한주민 의식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협력의식’은 55.7%로 여전히 높으며 남한에 대한 지식(대남인지도)도 평균 64%로 높다. 북한주민 절반 이상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고 동포라는 의식이 아직은 더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의 62.4%가 남한의 대북지원 사실을 알고 있고 72.5%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67%의 주민은 남한의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경제생활이 더 어려워짐으로써 남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주민들의 긍정적 대남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남한주민과 비교하면, 남북 간 이질성 인식이나 상호인식, 안보불안 등의 여러 영역에서 매우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으나,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준에서,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식에서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상대를 더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자 표본의 편향 때문이 아니라 주변국 관계와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접수: 2014년 11월 5일 / 심사 : 2014년 11월 20일 / 게재확정: 2014년 11월 24일



## 【참고문헌】

### 국문단행본

박명규 · 김병로 · 송영훈 · 장용석 · 정은미. 『2013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

### 국문논문

김병로 ·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평화』 4집 1호(2012). pp. 101~139.

### 기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정은 집권 2년, 북한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북한 사회와 주민의식 변화 학술회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4년 8월 27일).

“중국 내 北주민 100명 심층 인터뷰(上): 對南 인식.” 『프리미엄조선』. 2014년 7월 7일;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07/2014070700194.html?cont01)> (검색일: 2014년 10월 21일).

## Recent Changes in Attitudes of North Koreans towards South Korea based on Interviews of North Korea Defectors

Kim, Philo (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hanges in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based on interviews conducted in June 2014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areas: perception of South Korea, knowledge about South Korea, and attitudes about South Korea's policies toward the North.

North Korean perceptions of South Korea have become less cooperative and more hostile; awareness of insecurity has increased; and awareness of South Korea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by the South decreased in 2014. However, a majority of North Korean people still consider the South as a partner despite latent and actual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This indicates that a strong feeling of belonging to the same ethnic group still exists in North Korea.

Compared to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the North, both groups share many attitudinal similarities, such as awareness of the other Korea, mutual recognition of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and inter-Korea

security concerns. There are also differences, most notably that North Koreans tend to regard the South as a better partner than the other way around. These results may be attributed to the influence of South Korea's cultural wave on North Korean attitudes and the North'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rather than bias contained in this sample group.

Keywords: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South Korea,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Conceptions of Inter-Korean Relations, Conceptions of Unification.

김병로(Kim, Philo)

---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북한연구실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북한-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김정은 후계체제』,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 종교인 가족의 존재 양식에 관한 고찰: 기독교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